

李退溪의 自然哲學**

申 龜 鉉*

• 目 次 •

- | | |
|-----------|--------------------|
| I. 서 론 | 3. 기(우주의 질료) |
| II. 본 론 | 4. 理(宇宙生成의 原理와 질서) |
| 1. 太極 | III. 결 론 |
| 2. 動靜(운동) | |

I. 서 론

오늘날 자연의 보호는 역사상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고 긴급히 요청되는 전세계적이고 전인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의 발생은 바로 서양의 근세에 이르러 실증적인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종래의 목적론적 자연관이 배제되고 새로운 기계적 자연관이 형성됨에 따라 인류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자연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단지 과학기술을 통한 정복과 파괴 이용의 대상으로만 삼아온 데 기인한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이 지구상에서 멸망시킬지도 모를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에 관한 새롭고 올바른 인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 영남대 철학과 교수

**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75호·제76호(1992) 게재논문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16세기에 생존했던 한국의 철학자 이퇴계(1501~1570)의 자연철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때 동양에서는 아직 기계적 자연관이 자체적으로 형성되거나 서양으로부터 전수되지도 않았으므로 퇴계는 동양의 전통적인 유기적 자연관을 계승하였으나 서양에서는 기계적 자연관이 14~15세기경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생존했던 독일의 철학자 셸링(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 1775~1854)은 그러한 자연관을 비판 거부하고 퇴계와 마찬가지로 유기적 자연관을 대변한다. 이처럼 두 철학자는 생존시대와 사상적 전통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자연관을 갖고 있었던 점에서 비교연구가 가능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는 동서양의 철학에 관한 상호 이해의 증진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요약에서는 퇴계의 자연철학만을 고찰하고 셸링의 자연철학과의 비교논술은 지면이 보다 더 많은 논문에서 전개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관이라고 하면 자연에 관한 부분적인 이해나 견해가 아니라 전체적인 견해나 이해를 의미하며 철학은 바로 이러한 이해나 견해가 성립될 수 있는 원리와 이에 관한 이론의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철학은 자연에 관한 전체적인 견해나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근본원리와 이에 관한 이론의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철학은 두 갈래의 연구를 통하여 형성 발전되어 왔다. 한 갈래는 고중세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경험적인 관찰이나 실험과는 관계없이 사변적인 추리와 사색에 의하여, 그리고 다른 갈래는 근세이후의 실험과 관찰에 근거한 자연과학적 인식을 통하여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경향이였다.¹⁾ 이렇게 성립한 자연철학이 포괄하는 대상범위는 자연에 관한 탐구영역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주론, 천문학, 기상학, 해양학, 물리학, 생물학, 지리학, 지구학, 역학 등과 같이 매우 광범하나, 이렇게 세분화되기 전에는 원래 우주의 구조론과 생성론이

1) 허욱 편, 『철학대사전』, (서울: 성균서관 1977), 자연철학 항 참조.

자연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었다.²⁾ 그리고 퇴계의 자연철학은 중국 송대의 철학자 周惇頤(1017~1073)의 「太極圖」와 「圖說」, 그리고 이를 계승한 朱熹(1130~1200)의 우주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³⁾ 이들과 함께 이들에 관한 퇴계의 설명들을 우리의 분석과 고찰의 주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II. 본 론

퇴계는 68세 때 작성하여 선조에게 바친 『聖學十圖』 중 제1도에 주돈이의 태극도와 도설을 수록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그의 자연철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와 도설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퇴계의 자연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

태극도는 다섯개의 원이 수직으로 배열되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⁴⁾ 이 다섯개의 원 중 위에서부터 두번째는 陰陽 動靜, 세번째는 五行, 네번째는 乾道成男 坤道成女, 다섯번째는 萬物化生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나 첫번째 원에는 아무런 명칭이 없다. 그러나 이 圖가 바로 태극도이므로 첫번째 원은 태극을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거기에는 태극이라는 명칭이 부여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도설은 이 다섯개의 도를 하나 하나 풀이하고 있다.⁵⁾

퇴계는 그의 『聖學十圖』에 이 태극도와 도설을 수록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
- 2) 야마다 케이지, 『주자의 자연학』, 김석근 역, (서울: 통나무 1991), 53쪽; 김용운 김용국, 『동양의 과학과 사상』, (서울: 일지사 1984), 114; 118쪽 참조.
- 3) 퇴계의 우주구조론은 성학십도 중 제1 태극도와 도설, 정범진 편, 『증보 퇴계전서』, 권1,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5), 198-99쪽; 우주생성론은 천명신도와 도설, 정범진 편, 앞의 책, 권2, 321-326쪽에 잘 나타나 있다.
- 4) 『증보 퇴계전서』, 권1, 198쪽.
- 5) 같은 곳.

위에서 설명한 것은 엄계 周子가 스스로 작성한 도와 도설이다. 평암 섭씨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 도는 바로 繫辭에 ‘易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를 낳고 양의가 四象을 낳는다.’라고 한 말씀을 추리하여 밝힌 것이다. 다만 역은 卦爻를 통해서 말하고 이 도는 造化를 통해서 말할 뿐이다.” 朱子는 “이것이 도리의 핵심적인 곳이며 또한 영원한 道術淵源이 된다.”고 하였다. 이제 여기 첫머리에 이 圖를 게재하는 것은 『근사록』이 이 도설로 첫머리를 삼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성인을 배우는 자는 이로부터 그 단서를 구하여 『소학』, 『대학』과 같은 책에서 노력하다가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 궁극적인 하나의 근원으로 소급해가면 이른바 窮理盡性하여 천명에 이르며, 이른바 신령한 능력을 다 발휘하여 변화할줄 알게 되는 것이니 덕의 성대함이다.⁶⁾

이와 같이 퇴계는 태극도가 우주의 구조와 생성은 물론 인간이 기질을 변화시켜 성인이 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퇴계의 자연철학에 국한해서 저 도설을 분석한다면 태극, 동정=운동, 음양=기 등의 개념과 주희가 태극을 해석하면서 도입한 이의 개념들이 고찰의 주대상이 된다. 이제 이들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하기로 하자. 그러나 이 개념들에 관한 퇴계의 논의는 주로 제자들과 문답논변한 서간들 속에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으므로 이들을 근거로 하여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 시도하는 것은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주로 퇴계가 尊信하는 朱子와 송대 성리학자들의 이에 관한 논의를 추적하여 간접적으로 퇴계의 사상을 추리 파악하고자 한다.

1. 太極

태극은 우주를 구성하는 근저이다. 주돈이는 이것을 “無極이면서 太極”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관해 제자 李養中이 퇴계에게 무극과 태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것인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

6) 앞의 책, 199쪽.

지를 올렸다.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이 규정에 관해 혼자 의심해 보니 극이라는 말뜻을 비록 지극으로 해석하나 이 이름을 얻게 된 이유를 추적해 보면 실지로 형상이 있고 방향과 장소가 있는 것에서 그 뜻을 취하여 말한 것입니다. 대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사방의 표준을 삼을 때 이곳에 다 이르면 다시 더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극에 이르러서는 실로 많은 이치의 근본이며 많은 변화의 근원이 되므로 그들이 모두 합쳐지고 모여지는 뜻이 극에 비슷함으로 역시 극으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태극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비록 그 형상이나 방향과 장소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유로써 무를 비유하고, 실로써 허를 비유한 것이며, 처음에는 형상이나 방향과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⁷⁾

이 편지에 대해 퇴계는 “黃勉齋의 설명을 자세히 이해한다면 당연히 보내온 설명이 옳다.”⁸⁾고 대답한다. 송대 후기 신유가의 한 사람이었던 饒魯의 태극도설에 관한 주석에서도 이미 위와 유사한 설명이 발견된다.⁹⁾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태극과 무극을 형상이나 방향과 장소, 즉 공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유로써 무를, 실로써 허를 비유하는, 즉 유기적 변화의 극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에는 의심할 바 없이 전우주를 단일의 유기체로 파악하는 사상이 깔려있으며 ‘극’을 일종의 유기적 조직의 중심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니담은 해석한다.¹⁰⁾

2. 動靜(運動)

“태극은 운동을 하여 양을 낳고, 운동이 극한에 이르면 가만히 멎은 상태가 되며, 가만히 멎은 상태가 되면 음을 낳는다. 가만히 멎은 상태

7) 앞의 책, 권2, 299쪽.

8) 같은 곳.

9) 조셉 니담, 『중국의 과학과 문명』, 이석호 외 2명, 권3, 제2판, (서울: 을유문화사 1989), 159쪽 참조.

10) 같은 책, 160쪽 참조.

가 극한에 이르면 다시 운동이 회복된다. 한번 운동하고 한번 가만히 멎는 것이 서로의 뿌리가 되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면 양쪽의 圈域이 성립된다.”라고 주돈이는 두 번째의 도를 설명한다.

이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태극은 운동을 한다. 그런데 이 운동이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기계적이고 인과적인 운동인지, 아니면 태극자체에 내재하는 유기적 작용과 목적에 의하여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송대철학자들의 자연철학과 이를 계승한 이퇴계의 자연철학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이를 분석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주돈이는 그의 태극도설에서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이라고 한다. 이러한 운동은 무한히 연속되는 직선운동이 아니라 始動과 極限사이에서 끊임 없이 반복되는 순환운동이다.

둘째, 주돈이는 계속해서 “陰變陽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이라고 한다. 우주(천지)의 이러한 운동과 생성 변화에 어떤 목적의지, 즉 우주의 마음이 작용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어느 제자가 주희에게 물었다.¹¹⁾ 이 물음에 대해서 주희는 분명히 작용한다고 대답한다.¹²⁾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주희의 자연철학에 있어서 우주는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인과적이며 기계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목적과 유기적 작용에 의하여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주돈이의 태극도와 도설 및 주희의 태극도설해를 받아들인 이퇴계의 자연철학도 같은 입장에 있었음을 추론하기 어렵지 않다.

셋째, 태극의 운동은 어떤 물체가 장소를 이동할 때 일어나는 것과

11) 주희, 『이찬주자전서』, 권49, 25a, 『흠정사고전서』, 자부, 『문연각사고전서』, 제 721책, (대만: 상무인서관), 721-374쪽. 問 天地無心 仁便是天地之心 若使 其有心必有思慮有營爲 天地曷嘗有思慮來 然 其所以四時行 百物生者 蓋以其合當如此便如此 不待思維 此所以爲天地之道.

12) 같은 곳. 曰 如此 則易所謂復 其見天地之心 正大 而天地之情 可見 又如何如說 祇說得他無心處耳 若果無心 則須牛生出馬 桃樹上發李花 他又却自定 程子曰 以主宰謂之帝 以性情謂之乾他 名義 自定 心便是他箇主宰處所以謂天地以生物爲心.

같은 공간운동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생성 소멸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양적인 증감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까지 수반하므로 화학이나 생물과 같은 유기적인 세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반해, 인과적이고 기계적인 운동은 단지 외형적인 변화만을 수반하는 물리적이며 무기적인 세계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송대철학들의 운동개념 속에는 유기적 우주생성론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를 수용 계승한 이퇴계도 같은 견해를 가졌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기(우주의 질료)

세번째 도에 관해서는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네번째 도에 관해서는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다섯번째 도에서는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變化無窮焉”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二氣는 음양, 五氣는 수화목금토를 지칭하며 이러한 기가 순포(확산)되어 사계절이 유행하고, 무극의 진수와 음양 오행의 정기가 신묘하게 합쳐지고 응집되면 하늘의 원리는 남성적인 요소를 이루고, 땅의 원리는 여성적인 요소를 이루며, 음양이 교감하여 만물이 생성 변화한다. 따라서 기는 확산, 응집, 교감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한 무기적 물질이 아니라 물질적 에너지로 파악된다.¹³⁾

기에 관한 이퇴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 유행하는 것은 氣이고 땅에 갖추어진 것은 質이다. 기질 속에는 반드시 所以然의 理가 있으니 이것이 性이다. 물이 불어나고 날씨가 더워지는 것은 기질의 성이다. 그러나 별도로 하나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理가 氣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물의 성이 되면 그 기를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 이 때문에 모든 사물이 각각 하나의 성을 지닌

13) 조셉 니담, 앞의 책, 168-170쪽 참조.

다. 기는 氣運이라는 세속의 말과 같고 질은 形質이라는 세속의 말과 같다. 사람과 사물이 태어나는 처음에는 기가 질을 이루고 태어난 뒤에는 기는 질 가운데 운행한다. 대저 호흡과 운동은 기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으나 성인은 알 수 있어도 중인은 알지 못하니 기의 청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목 형체는 질이니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으나 聖人は 행할 수 있어도 衆人は 행할 수 없으니 질의 순수하고 뒤섞임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¹⁴⁾

주희에 의하면 “천지의 사이에 理도 있고 氣도 있다. 理는 형이상의 도이고 氣는 형이하의 그릇이며 사물을 생성하는 도구이다. 이 때문에 사람과 사물이 생성될 때 이 理를 부여받은 뒤에 본성을 지니고, 이 氣를 부여받은 뒤에 형체를 지닌다.”¹⁵⁾ 그러나 “아마도 이 氣는 이 理에 의지해서 운행하므로 이 氣가 모이면 理가 또한 존재한다. 대개 氣는 몽치고 조작할 수 있으나 理는 情意, 計度, 造作이 없으므로 다만 이 氣가 모이는 곳에 理가 문득 그 속에 존재한다.”¹⁶⁾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해 우리는 이퇴계, 주희, 주돈이에 있어서 물질적 에너지인 氣가 우주 형성하는 原質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理(宇宙生成의 原理와 秩序)

理는 원래 사물의 ‘유형’, ‘옥의 아롱진 무늬’, ‘근육의 섬유조직’과 같은 것을 의미했으나 후대에 와서 ‘원리’라는 의미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주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니담은 지적한다.¹⁷⁾ 주희는 “理가 한 가닥의 실과 같아서 조리가 있고, 대바구니와 같아서 위로 가는 한 조각을 지칭하여 말하기를 ‘한 가닥은 이리로 간다.’고 하고 또 다른 한 가닥을 지칭하여 말하기를 ‘한 가닥은 이리로 간다.’고 한다. 또 대

14) 『퇴계전서』, 권5, 203-204쪽.

15) 『주자전서』, 권49, 6a.

16) 같은 책, 3a.

17) 니담, 앞의 책, 170쪽 참조.

나무의 나무결과 같아서 세로도 같은 理이고 가로도 같은 理이다. 마음이 있으면 곧 많은 理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¹⁸⁾

주돈이는 그의 태극도설에서 이러한 理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희가 이 도설을 설명하면서 태극을 ‘理’¹⁹⁾라고 해석하고, 이것을 氣와 엄격히 구별하여 “理와 氣는 결단코 서로 다른 것이나 다만 실재하는 사물에서 보면 두 가지는 뒤섞여서 갈라낼 수 없이 서로 한 곳에 있을 뿐이며, 두 가지가 각기 다른 하나의 사물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만약 理의 측면에서 본다면 비록 사물이 없어도 이미 사물의 理가 있다. 그러나 다만 그 理만 있을 뿐이고 실지로 이 사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²⁰⁾라고 한다. 퇴계도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여 理와 氣가 같은 것이 아님을 논증하였다.²¹⁾ 이외에도 理氣의 동정, 선후, 체용관계에 관해서 많은 철학적 분석과 토론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는 氣의 운동은 물론 理의 운동까지도 인정하면서 후자가 전자 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主理派와, 理의 운동을 부정하고 氣의 운동만을 주장하는 主氣派가 형성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한 고찰은 본 논문의 주제에 속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다만 氣와 엄격히 구별되는 理가 우주의 형성 발전을 위한 어떠한 원리나 법칙으로 파악되었는가를 밝히기만 하면 충분하다.

니담은 중국에서 형성된 자연법칙에 관한 사상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자세히 고찰하면서 주희의 제자 陳淳의 설명을 예로 하여 송대 신유학자들이 사용한 ‘理’와 ‘則’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고, “따라서 우리의 新儒學派에 있어서 ‘法則’은 화이트헤드(Whitehead)派의 유기체적인 의미로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뉴턴(Newton)적 의미에서의 ‘法則’은, 朱熹와 新儒家들이 「理」를 정의할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전혀 없었다는 점을 거의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²²⁾라고

18) 『주자전서』, 권46, 13b.

19) 『주자전서』, 권49, 9a. 太極只是一箇理字.

20) 『주자전서』, 권49, 6a.

21) 非理氣爲一物辯證, 『퇴계전서』, 권 2, 330-332쪽 참조.

한다.

Ⅲ. 결 론

위의 고찰을 통해 이퇴계는 우주와 자연이 유기적 구조와 질료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적 운동과 생성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우주와 자연 속에서는 모든 사물은 물론 인간마저도 그것과 유기적 조화를 이루는 한 부분이며 결코 분리 대립되어 그것을 파괴하거나 정복하는 존재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퇴계는 무수히 많은 자신의 詩歌와 산문 및 서간을 통해 자연, 사물, 인간간의 조화가 중요함은 물론 천리의 유행을 올바로 깨닫고 이에 순응하는 것이 성인이 되는 요건임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산서당에 조그마한 동산을 만들고 연못을 파서 사군자로 불리는 梅蘭菊竹과 같은 식물과 연꽃을 가꾸면서 몸소 자연을 찬미하고 보호하는데 솔선수범하였다. 이러한 퇴계의 자연관과 자연철학은 서양근세에 성립된 기계적 자연관을 비판 거부한 셸링의 유기적 자연관이나 자연철학과 함께 자연을 단순히 정복과 파괴, 이용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오늘날의 그릇된 자연관과 자연철학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두 철학자의 자연관이나 자연철학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계속 추구되어야 할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22) 니담, 앞의 책, 299쪽.